

최근 중국의 한국전쟁 소재 영화의 흐름과 특징

— 『장진호』 2부작, 『금강천』, 『저격수』 를 중심으로

이정훈*

목 차

1. 들어가며
2. 신주류 영화: 주선울 영화와 상업영화의 합류
3. 모방의 원천으로서의 할리우드 영화
4. 영화 속 애국주의를 둘러싼 논란과 이데올로기 전파의 한계
5. 맺으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중국영화 『장진호』 2부작 및 『금강천』, 『저격수』를 대상으로 주제, 재제, 표현형식 등의 측면에서 애국주의 주선울 영화와 상업영화의 특징이 결합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중국에서 최근까지 묵시적으로 정면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애국주의 주선울영화의 지향에 맞추어 변형시켜 미중 갈등 시대의 반미의식을 고양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재제, 인물설정, 서사형식, 촬영기법 등의 영화적 요소들을 최근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전쟁영화로부터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소위 '신주류영화'로 불리는 중국영화의 최근 제작 트렌드를 충실히 따르면서 현재 벌어지는 미국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를 이 신주류영화의 문법에 대입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념지향적 성격을 전면에 내세운 주선울영화의 성격과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이질적 특징이 한데 결합된 이 작품들은 일견 높은 흥행성과 더불어 중국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대한 과도한 자국 중심의 역사해석 및 개인의 무한한 희생을 당연시하는 식의 애국주의가 갖는 편향적 성격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존재했으며 최근에 나온 유사한 재제의 작품인 『志願軍: 雄兵出擊』(2023)의 기대에 못미치는 흥행성적에서도 알 수 있듯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키워드: 향미원조, 한국전쟁, 장진호, 수문교, 금강천, 저격수

1. 들어가며

중국영화 사상 최대의 제작비인 2380억원(13억 위안)을 투자하여 엑스트라 포함 7만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역대 1위의 흥행실적을 달성한 영화 『장진호(長津湖)』(2021)의 등장은 최근 중국 영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한국 영화사상 최대의 성적을 기록한 『명량』(2014)의 8배를 초과하는 1조1천억원(58억위안)의 흥행수입은 시장의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영화가 산업으로서 본궤도에 올랐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작방식에 있어서도 7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배우진을 세명의 공동연출자(감독)가 팀별로 나누고 다시 각 팀별 복수촬영조(AB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탱크, 대포 등의 화기가 동원되는 고난도 촬영을 단기간에 완성함으로써 중국영화 산업이 대공업적 생산능력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영화 전랑(戰狼) 시리즈로 최고의 흥행배우 및 감독의 반열에 오른 우징(吳京) 및 아이돌그룹 TFBOYS의 메인댄서이자 배우로 2021년 포브스선정 중국유명인 1위에 선정된 바 있는 이양첸시(易烊千璽)를 주연으로 내세우고 이밖에도 후권(胡軍), 단이홍(段奕宏), 주야원(朱亞文), 리첸(李晨) 등 주연급 배우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등 출연진 구성에 있어서도 고액 개런티의 스타 배우의 티켓 파워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블록버스터의 제작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중운동식 관객 동원

과 애국주의를 부각시킨 바이럴 마케팅을 조합시키는 새로운 흥행공식을 통해 역대 흥행 1위의 실적을 거둔 것 역시 오늘날 중국 영화산업의 흐름을 징후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장진호의 이러한 성공은 국내 언론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中 애국주의 돌풍…6·25 영화 ‘장진호’ 역대 1위 올라서”¹⁾,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 속편도 대박…중국 역대 흥행 8위”, “中 ‘국뽕’ 영화 ‘장진호’ 인기 폭발, 미국 반발할 듯”²⁾ 등 중국에서의 『장진호』의 흥행 성공을 소개하는 국내 미디어의 보도는 흥행실적 그 자체보다도 영화의 이념적 지향점이라 할 애국주의에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한중 간의 갈등이 불거진 이래, 한국의 주류적 중국인식이 점차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지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MZ세대로 지칭되는 한국 2,30대의 중국에 대한 최근 인식이 반중, 즉 중국에 대한 반감을 넘어 혐중, 즉 중국에 대한 혐오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³⁾임을 고려하면, 『장진호』의 성공을 중국의 팽창지향적 애국주의, 공격적 반미주의에 대한 우려와 결부짓는 이러한 접근은 최근 한국 사회 전반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연스럽게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일간신문의 기명칼럼에서는 1950~60년대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들은 1970년대 미-중 화해 이후 거의 사라져 이를 언급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왔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이러한 흐름이 뒤집혔음을 지적한다. 항미원조가 다시 정의로운 전쟁으로 새롭게 규정되는 한편, 최근의 미-중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는 정치 선전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고, 다시 애

1) 『서울경제』, 2021년 11월 25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5JK5ZS8> (검색일: 2023년 12월 5일)

2) 『아시아투데이』, 2021년 9월 26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926010012721> (2023년 12월 5일)

3) 「협중이 놀이가 돼 버린 시대, 출구는 없을까」, 『서울신문』, 2022년 8월 28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8500105>, (2023년 11월 15일 검색)

국주의 선전을 통해 불평등과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한 불만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까지 영화에 투사되고 있다는 것이다.⁴⁾ 같은 맥락에서, 학계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최근 패권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중미 갈등 속에 중국의 항미원조 전쟁기억이 화려하게 귀환하면서, 그간 묻어둔 한국전쟁의 적대적 기억마저 가뜩이나 심각한 반중감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⁵⁾

이러한 국내외적 정치상황과 밀접히 연관된 정치적 선전의 요소와 더불어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영화의 제작 및 홍보 과정에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당 중앙선전부 영화국이 기획 및 제작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영화 제작사인 八一電影製片廠이 민간회사인 메인투자사 보나필름(京博納影業集團有限公司)에 이어 두번째 주요 투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영화가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대국민 이데올로기 선전을 주된 목적으로 기획, 제작, 유통된 일종의 정치적 홍보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근거로 이해된다. 한국에서의 영화제작 관행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부의 영화제작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낯설게 여겨지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이러한 개입이 영화가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홍보 수요에 부응하게 만드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장기화되어 가는 미중 간의 대결 국면에서 중국정부는 현 체제의 우월성을 전국민적으로 선전해야할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국을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것이나 당원 및 공무원의 의무관람 등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객 동원을 통해 흥행 1위의 기록을 만들어낸 사실 등은 이 영화가 콘텐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르는 문화상품이라기 보다 당과 국가가 내세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영화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국책 홍보물의 일종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근거

4) 박민희, 「'장진호'가 던진 불편한 질문들」, 『한겨레신문』 2022년 10월 14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5158.html>

5) 백지운,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2023. 68쪽.

가 되고 있다.

『장진호』와 그 속편에 해당하는 『장진호 수문교편(長津湖之水門橋)』(2022, 이후에는 이 두편을 묶어 『장진호』 2부작으로 약칭함)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金剛川』(2020), 『狙擊手』(2021) 등 최근에 등장한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은 기획의도와 제작 및 마케팅 방식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 한국의 중국인식 틀에 비추어 이 영화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일련의 영화들이 제작사나 감독 등이 정부 당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영화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및 제작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만들어낸 일종의 비정상적 산출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일견 낯설어 보이는 관(官)의 영화제작 과정에의 직접 개입에만 주목하여 이 영화들이 갖는 정치선전의 도구로서의 비정상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실제로 이 영화들의 기획, 제작, 소비 과정이 갖는 다면성과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당과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영화의 전체 기획, 제작, 유통의 과정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 일련의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 역시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기획의도와 제작 및 소비과정에서 흥행, 즉 상업적 요소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얼핏 상업성과 대립하는 요소로 보여지는 이 영화의 정치적 성격은 오히려 상업성을 또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되어 흥행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 이런 각도에서 바라 볼 때, 이 영화들은 중국 공산당 혹은 정부가 영화제작사 혹은 감독, 배우들을 일종의 강제적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치선전물을 주문 제작한

6) 실제로 이 영화의 메인제작사인 보나필름은 2010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최초의 중국 영화사였으나 2016년 상장폐지되었다가 장진호 2부작의 흥행성공을 계기로 중국(선전)증권거래소 상장하여 막대한 자본을 공모하는데 성공했으며, CEO인 위동(于冬)은 이 자본을 바탕으로 앞으로 15년 안에 세계적인 인재들을 데려와 좋은 중국이야기를 만드는 데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영화 <장진호> 제작사 ‘보나필름’, 중국 선전 증시 상장」,

https://www.kobiz.or.kr/new/kor/03_worldfilm/news/news.jsp?mode=VIEW&blbdComCd=601001&seq=3820 (검색일: 2023년 12월 5일)

결과물로 보기보다 관객 외에 또다른 의미의 콘텐츠 소비자라 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요 투자자의 하나로서의 당과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영화 산업 관련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것이 실제 상황에 보다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⁷⁾

이처럼 정치성과 상업성이 단순한 대립의 양상을 띠기 보다 뒤섞여 공존하는 최근 중국영화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신주류 영화⁸⁾’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과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던 선전매체로서의 ‘주선율 영화⁹⁾’와 그 반대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상업영화’가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융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¹⁰⁾ 2장에서는 이 ‘신주류 영화’라는 개념을 통해 전통적 주선율 영화와 상업영화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경쟁, 공존, 상호침투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융합된 형태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검토하면서 최근 개봉된 일련의 한국전쟁(항미원조전쟁) 소재 영화들이

7) 장진호 2부작의 제작자이자 5세대 감독의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황젠신(黃建新)은 보나필름의 투자이기도 하며, 주연 우징은 자신이 40%의 최대주주로 있는 北京登峰國際文化傳播有限公司가 제7순위의 공동투자사로 장진호 2부작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출연료와 별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8) 안영은에 의하면, 신주류영화는 전통적인 주선율영화가 상업적 시스템 속에서 나름의 길을 모색하면서, 주선율과 상업화의 상호작용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거대자본이 투자되면서 ‘블록버스터급 신주류영화(신주류전영대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다. 안영은, 「〈전랑(戰狼)2〉 연구: 주선율영화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주류영화로」, 『중국연구』 제82권 62쪽.

9) 강내영에 따르면, “주선율영화는 “중국의 주선율(主旋律) 영화는 사회주의혁명정신과 애국주의 등 정치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창작된 영화를 지칭한다. 주선율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main theme’, 혹은 ‘main melody’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마치 음악에서 주도적이고 반복적인 역할을 하는 선율처럼 국가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표출하는 영화라는 의미”이다. 강내영, 「‘신주선율’과 ‘진주선율’— 중국 주선율영화의 변천과 이데올로기 창출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49집. 219쪽.

10) 신주류영화 개념의 등장과 관련한 중국 영화계 내부의 상황 및 맥락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유경철,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 국가의 요청에부응하는 중국 영화의 새 지향」, 『中國學論叢』 제75집(2022년 3월) 127-128쪽.

어떤 측면에서 이 신주류 영화의 전반적 흐름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정치성과 상업성의 공존 혹은 결합을 추구하는 이 영화들은 한편에서 과거의 주선율영화들로부터 혁명, 애국, 사회주의라는 대의를 위한 희생 등의 주제와 영웅화된 인물묘사 등의 특징을 이어받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헐리우드 등의 해외영화들에서 새로운 소재, 캐릭터와 갈등 구도의 설정, 촬영기법 등의 요소를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상업적 요소의 핵심적 경쟁력으로서의 스펙터클한 볼거리에 아낌 없이 투자한 이 영화들은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전투 장면 및 실제 무기 등 장비의 과감한 투입, CG 등 특수효과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청중에 대한 시각적 흡인력을 높이고 있지만, 재제(주요소재), 인물설정, 갈등구조, 촬영기법 등 영화의 내용적 부분에 있어 헐리우드 전쟁영화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거침 없이 가져다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배경과 시대를 달리하는 헐리우드 요소들을 중국적 맥락에 맞게 변형시키는 일종의 번안작업을 거치기에 이러한 가져다 쓰기를 표절로 못박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영화의 전체 메시지나 사건의 정합성, 역사적 사실 고증의 측면 등등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요소들이 다소간 맥락 없이 영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방식의 헐리우드 가져다 쓰기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화려한 시각효과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애국주의의 구호에 가려져 대다수의 관객들에게는 이 서사적 정합성을 결여한 헐리우드 영화 가져다 쓰기의 측면이 간과되기 쉬울 수도 있겠지만, 항미원조를 기치로 내건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의 반미라는 정치적 메시지의 이면¹¹⁾에는 미국적 혹은 헐리우드적 요소가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아이러니한 양상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이러한 헐

11) 한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항미원조 서사가 미국이라는 세계최강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역사로 각인되고 새로운 미중 냉전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동인이 되지만,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동시에 선망의 감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구, 「동시대 중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속 '미국'이라는 문제」, 『중국현대문학』 제105호, 2023. 116쪽 및 131쪽.

리우드 전쟁영화 장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최근 중국의 한국전쟁 관련 영화들 속에서 차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이들 영화의 사회역사적 컨텍스트로서의 한국전쟁과 관련된 역사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로부터의 일방적 이데올로기 전파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애국주의 선전으로서의 이들 영화가 갖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에 솔선하여 참전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의 죽음이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먹다 새어나간 불빛으로 인해 미군 폭격기에 희생된 것이라는 주장을 둘러싼 인터넷 상의 논란과 『장진호』에 등장하는 흑한에서의 매복 중 중대 전원이 동사한 ‘얼음조각중대’의 희생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소셜미디어상의 논란 및 이후 일종의 ‘필화’ 사건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 영화의 애국주의 선양이 한편에서는 중국 내의 이념 갈등을 표면화하는 하나의 도화선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주류 영화: 주선울 영화와 상업영화의 합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영화는 무엇보다 정치적 선전으로서의 측면이 우선시 되어왔다. 소수의 국영영화사에 의해 정치적 선전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주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주선울 영화’는 줄곧 중국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¹²⁾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헐리우드 및 홍콩 등 외국

12) 강내영에 따르면 주선울이라는 용어는 1987년 정치적 구호로서 등장했지만, 사실상 1949년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이후 채택된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고, 직접적으로는 연안문에 강화에서 노·농·병 중심의 문예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1949년부터 1966년까지의 ‘17년 영화’, ‘문화대혁명 시기의 모범극’ 등 이른바 홍색(紅色)영화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화라 할 수 있다. 강내영, 「‘新 주선울’과 ‘汎 주선울’— 중국 주선울 영화의 변천과 이데올로기 창출 연구」, 『중국

영화의 영향 아래 성장한 상업영화와의 경쟁 속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쇠퇴해왔다. 무엇보다 관객의 주선을 영화에 대한 비선호로 인해 영화시장에서 외면받게 되자 본연의 목적인 이데올로기 전파의 측면에서도 유효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당국은 주선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정치적 선전을 표면화시키는 것을 자제하는 한편 정부의 공식담론의 폭을 점차 넓혀가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영화산업의 특수한 상황 즉, 정부주도로 영화산업의 시장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1994년 이후 추진되어온 영화산업의 시장화와 개방화 정책에 의해, 그 이전까지 정부가 주도하던 영화시장은 시장시스템과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된 주선율 영화는 시장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영화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한 대작 상업영화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이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이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점차 강화하게 된 것이다.¹³⁾ 한편에서는 1990년대 이래 공산당 주도의 위부터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고도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과 발맞추어 영화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대두하면서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는 중국영화계의 당면과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주선율 영화를 유연화하는 한편, 영화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우수한 국산 영화를 생산함으로써 헐리우드 등 외국 영화에 잠식당하는 중국 내 영화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¹⁴⁾이 지속되어 온 결과, 주선율영화와 상업영화 양자의 간극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양자의 점차적 융합을 추동하여 ‘신주류영화’라는 새로운 범주가 등장한다. 신주류영화의 혼종적 특성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선전을 강조해온 주선율

문학연구』 제49집.

13) 강내영, 「‘新주선율’과 ‘汎주선율’— 중국 주선율 영화의 변천과 이데올로기 창출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49집.

14) 중국에서 흔히 ‘大片’으로 칭하는 중국식 블록버스터 상업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항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 ‘대규모 마케팅’, ‘대규모 제작’, ‘대규모 시장’의 네 가지 ‘대(大)’를 추구하는 영화를 가리킨다. 강내영·장수현, 「중국식 블록버스터 상업영화의 변천과 이데올로기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 18호, 2013. 1~2쪽.

영화와 문화상품으로서의 영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상업영화를 나누어 온 과거의 관행적 구분이 오늘날 중국영화계의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유효한 구분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의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은 바로 이런 신주류영화로서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작 항미원조와 관련된 역사적 재제는 그동안 주선율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1970년 초반 이래 양국관계에 있어 전쟁이라는 불편한 과거사와 역사기억을 표면화할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항미원조라는 재제는 일종의 봉인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¹⁵⁾ 그런데 2020년을 전후로 그간 금기시되었던 항미원조가 다시 주류적 담론으로 재등장하면서 관련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진다.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반미를 핵심으로 하는 저항적 내셔널리즘’의 고취가 정치적으로 요청되었고 애국주의를 불씨로 삼아 인민의 단합을 도모하고 대미항전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설욕’의 서사를 구성¹⁶⁾하는 데 있어, ‘항미원조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2020년은 중요한 상징성을 얻게 된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영화 등 문화컨텐츠를 총괄하는 국가광과전시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은 항미원조를 항일 및 코로나방역전쟁과 더불어 문화컨텐츠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중요재제로 선정하여, 시진핑의 항미원조 70주년 담화에서 강조한 바,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삶을 수호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으로 전쟁을 막고 무기로 전쟁을 막고 승리로 평화와 존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위대한 반미정신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며 대를 이어 영속적으로 계승”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¹⁷⁾

15) 한담, 「탈혁명시대 중국 항미원조 기억 서사의 난처함 -영화 「나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87집. 59쪽 각주4)를 참조.

16) 한담, 「중국 항미원조 영화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재현 양상과 한계 - 영화 <장진호> 시리즈의 ‘설욕내셔널리즘’과 <저격수>의 ‘가국감정’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제39집. 52쪽, 58쪽 61쪽 참조.

17) 習近平, 「在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70周年大會上的講話」, 2020년 10월 23일.

이러한 예의 하나로 향미원조 재제 영화로서 참전 70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 제작된 『금강천』은 독특하게도 이 영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관객들을 위해 프롤로그 형태의 배경설명을 도입부에 배치하며 애국주의 선양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영화가 설명하는 아래의 한국전쟁 참전의 역사적 맥락과 당시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은 위에서 언급한 시진핑 담화의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전의 필요와 영화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했고 6월 27일 미군 제7함대가 타이완 지붕 및 가오슝항에 진주하며 타이완해협에서 정찰 순시 및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 9월 15일 미군 제10군이 인천상륙에 성공하여 'UN군'과 함께 북으로 진격한다. 극동에 주둔하는 미공군은 수천기의 비행기를 출격시켜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해하였다. 전쟁의 불길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토주권과 생명안전은 엄청난 위협에 처해졌다. 침략자의 도발 앞에서 중국정부는 조선(북한)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번의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조선으로의 출병을 결정한다. 10월 25일 중국 인민지원군은 조선 국경선을 넘어 첫번째 전투를 치르며 향미원조의 서막을 열었다. 신중국이 막 성립한 상황에서 산업체계는 미비했고 공군력은 미약했으며 탄약 역시 극도의 결핍상태에 놓여있었지만 나라의 토대를 세우는 이 전쟁을 잘치루는 것은 신중국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한편, 전세계를 상대로 중국의 위신과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 1953년까지 두 단계의 고통스런 작전을 거쳐 아군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했고 7월 중순에 이르러 금성전투를 중심으로 한 하계반격작전의 제3단계 작전에 나서는데 이는 마지막 결전이었다. 이 전투의 승리는 향미원조전쟁이 최종승리를 의미했다.¹⁸⁾

이러한 긴 설명과 더불어 영화의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발굴된 지원군의 유해봉환식과 엄호비행 장면을 배치¹⁹⁾하여 국가적 의례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

18) 『금강천』 (1 : 39~3 : 38)

19) 『금강천』 (1 : 55 : 21~1 : 57 : 25)

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선전효과에 대한 전면화로 인해 영화의 흥행적 요소에 대한 배려가 부차화된 것은 아니다. 이 영화는 과거 중국의 국영영화사들을 합병하여 만든 거대 국영영화기업 China Film Group Corporation(中國電影集團公司)²⁰⁾이 주요 투자자로 나섰지만 앞서 설명한 신주류영화의 특징 즉, 주선율적 성격에 상업영화의 특성을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먼저 우징(吳京), 덩차오(鄧超), 장이(張譯) 등 스타급 주연배우와 더불어 리주샤오(李九霄), 웨이첸(魏晨) 등의 호화출연진을 구성하여 배우들의 티켓 파워에 기반한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감독의 선임에 있어서도 6세대 감독으로서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항일영화 『八佰』(2020)를 연출한 관후(管虎), 태양계의 소멸 위기에 봉착해서 중국이 주도하여 지구를 다른 은하계로 옮기는 SF 소재 영화 『유랑지구』(2019)를 연출한 귀관(郭帆), 2010년 장편처녀작 『盲人按摩院』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트 부문 KNN상을 수상한 바 있고 후에 무협역사극 『繡春刀』 시리즈로 흥행감독의 반열에 오른 루양(路陽)을 공동감독으로 선임한 것에서 작품성과 흥행적 요소, 현대역사극의 주선율적 메시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담고자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처럼 정치적 메시지와 흥행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작 방식은 『장진호』 2부작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서론에서 언급한 스타 배우들의 캐스팅 외에 5세대 감독의 대표인물이라 할 천카이거(陳凱歌), 홍콩 상업영화의 최고 흥행 감독 가운데 하나인 쉬커(徐克), 중국의 변화된 국제적 영향력을 부각시킨 새로운 액션물 『紅海行動』(2018)으로 홍콩영화의 새로운 활로를 연 단테람(林超賢) 등 현재 중국영화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감독들을 공동감독으로 선임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최근 흥행영화의

20) CFGC는 1999년 국영영화사 체제의 개혁 과정에서 새롭게 성립된 국영영화 기업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인 한편 독점적으로 해외 영화수입 권한을 가진 기업으로 15개의 자회사와 30여개의 타기업 지분참여, 영화채널 운영 등 영화계에서 지배적 영향을 갖추고 있으며 28억 위안의 자산으로 중국 100대 기업 가운데 94위에 해당하는 거대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트렌드 속에 녹여내고자 하는 기획의 방향을 드러낸다. 사실 천카이거도 최근 작들은 과거의 작가주의에 입각한 예술영화와는 거리가 있는 작품들, 당나라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환타지소설을 각색한 중일합작영화 『妖苗傳』(2017), 왕바오창(王寶強), 귀푸청(郭富城), 장진(張震) 등의 스타배우를 캐스팅한 현대배경의 쿵푸물 『道士下山』(2015) 등의 연출로 최근에는 작가주의 감독보다는 흥행영화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또한 무협물, 코미디, 액션활극 등 전형적인 홍콩영화 장르물에 특화된 감독으로 알려진 쉬커 감독 역시 2014년 중국의 홍색경전(紅色經典)인 혁명현대경극 『智取威虎山』(1958)을 영화화한 동명영화의 연출을 맡아 주선율 영화라는 낯선 장르에 몸을 담근 바 있는데, 공동연출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상업영화와 정치적 선전영화간의 융합과 넘나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신주류영화의 특징을 감독 선임에서 우선 예측하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스타감독들의 역할 분담에 중국영화사상 최대 액수의 제작비가 더해지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관객동원과 충분한 스크린의 확보를 포함하는 배급망의 협조와 더불어, 영화 종료 후 감격에 겨운 관객이 스크린을 향해 경례하는 장면을 담은 SNS를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바이럴 마케팅 기법²¹⁾까지 더해져 영화 『장진호』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이처럼 기획, 촬영, 배급, 관객으로부터의 피드백 등 여러 차원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신주류 영화의 생산메커니즘을 폭넓게 고려한다면 단순히 국가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선전 영화가 막대한 수의 관객 동원 성공하는

21) 영화를 보고 감동한 관객이 스크린을 향해 경례를 하는 사진이 관영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된 것을 일종의 관-연-민 합동 마케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올해 개봉하여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6위의 흥행실적을 기록한 장이머우 감독의 『만강홍』에서도 영화의 애국주의 메시지에 감동한 관객이 스크린을 향해 岳飛의 사(詞) 「滿江紅:怒發冲冠」을 장중하게 암송하는 동영상이 널리 퍼졌는데, 사를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훑어보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자발적인 감동의 표현이 아니라 마케팅 효과를 위한 퍼포먼스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는 장면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Z99Z6bAi48>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것을 전체주의 문화현상의 발현으로만 고정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모방의 원천으로서의 헐리우드 영화

그런데 이상과 같은 영화 전반의 신주류화로의 흐름 속에서 충분한 창의성의 활로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점차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블록버스터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중국 영화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헐리우드 영화를 의식하고 이를 영감의 원천이자 모방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는데 최근의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 속에서도 이런 경향은 예외 없이 발견된다. 항미원조가 표방하는 바, 미국과의 대결을 통해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영화 속에서 미국의 존재를 무겁게 다루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는데, 대항하고자 하는 적의 존재감이 강렬할수록 이러한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서사가 관객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혹은 이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 상징적 요소로서 헐리우드적 영화문법)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영화 속에서 강력한 적대자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의 내적 구조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면 이는 다소 미묘한 문제가 된다. 현재 갈등관계에 있는 미국이라는 강력을 적대자를 영화를 통해 성토했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결국 세계를 향해 문화적 패권을 투사하는 헐리우드 영화의 문법을 직간접적으로 모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반미라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메시지와 지극히 친미 혹은 친헐리우드적인 영화 생산방식 사이에는 거대한 부조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 속에서 이념적 배척의 대상으로서의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반미 지향적 영화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상에서 언급한 반미적 성향이 농후한 한국전쟁 소재 중국 영화들의 헐리우드 따라하기는 먼저 재제의 차원에서 두드러진다. 헐리우드가 만든 전쟁영

화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라이언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의 영향은 『장진호』 2부작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삼형제의 참전이라는 설정이 영화 장진호 2부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라이언 일병은 손위의 두 형과 더불어 모두 2차대전에 참전했는데 그 중 두 형제가 이미 전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형제 중 마지막 남은 라이언일병마저 전사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판단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어 후방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계획이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의 모티브를 형성하는데, 이 삼형제 동시 참전이라는 설정은 그대로 『장진호』 2부작으로 옮겨진다. 큰형 우바이리(伍百里)가 국공내전에서 이미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막내 우완리(伍萬里)가 뒤늦게 자원 참전하는 것, 막내의 참전을 반대하던 둘째 우첸리(伍千里)가 동생의 참전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전장에서 신뢰를 보내는 것, 2부 수문교에서 전투를 벌이다 함께 희생되는 것으로 보였던 두 형제 중 막내가 부활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생존하는 등 (삼)형제의 동시 참전 관련 서사는 장진호전투의 처절함을 다룬 전체 스토리와의 긴밀한 연계성이 부족함에도 전체 영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형제 동시 참전 모티브를 성격을 달리하는 『장진호』 2부작에 무리하게 적용하고자 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삼형제의 참전 모티브는 『장진호』 2부작에서 변형의 과정을 거친다. 『라이언일병 구하기』가 아들 삼형제를 전쟁에 보낸 어머니에게 세 형제 모두에 대한 전사통지서를 보낼 수는 없다는 국방부 장관의 신념으로 대변되는 ‘가족’이라는 단위의 공동체에 대한 동원주체로서의 국가의 배려라는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장치로 무리한 라이언 일병 찾기 작전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서사적 근거로 작동한다. 이에 반해 장진호 2부작에서는 삼형제 모두의 참전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그다지 고려되지 않아, 이들 모두가 희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거나 심지어는 당연시하는 것으로 핵심 모티브로서의 형제 동시 참전이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막내의

입대 동기가 큰형의 희생과 작은 형의 군복무를 통해 가난한 집안 살림이 펴게 되는 '물질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암시되면서, 처음에 동생의 입대를 막았던 둘째형 우완리가 결국 동생의 입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개별 구성원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은연 중 정당화하는 의미를 띠며, 결과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일(衛國)을 통해 얻는 보상이 경제적인 효익의 측면에서 가족을 지키는 일(保家)이라는 식의 설정은 '보가위국'이라는 이념적 구호의 이면에 존재하는 지극히 현실적 측면을 엿보게 해준다.

『라이언일병 구하기』에서 미군이 어려운 전황에도 불구하고 삼형제 모두가 희생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이념으로 최일선의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서 후방으로 보내기 위한 희생을 무릅쓰는 것과 달리, 『장진호』 2부작에서 암시되는 삼형제가 모두 전사할 가능성은 오히려 이들의 불굴의 전투의지를 상징하는 기제로서 애국주의에 기반한 개인의 희생을 묵시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굳이 세 형제가 동시에 전사에 이르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라이언일병 구하기』의 모티브가 『장진호 수문교편』에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을 찾자면, 영화 후반부에서 둘째형과 함께 전투 끝에는 속에 파묻혀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던 우완리가 갑자기 주변에 붙은 불길로 얼어가던 몸이 녹으면서 되살아나는 장면은 삼형제 전원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서사적 개연성을 희생해가면서까지도 막내를 살려냄으로써 나름의 인도적 배려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세 형제가 한번도 같은 전장에 등장하지 않는 『라이언일병 구하기』와 달리 『장진호』 2부작에서는 전장의 지근거리에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둘째형 우첸리의 노력이 부각되는데, 이는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인물설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²²⁾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형(진

22) 『태극기 휘날리며』는 형제가 동시에 징집된 상황 속에서 초반에는 동생을 살려서 제대시키기 위한 형의 분투와 희생을 그리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전쟁 속에서 점점 광기로 치달아 가는 형을 막고자 하는 동생과의 갈등 상황과 부역 혐의자로 몰려 약혼자가 죽고 동생이 전사했다고 믿게 된 형이 인민군으로 전향하고 이러한 형의 소식을

태, 장동건 분)이 애국이나 반공 등의 이념이 아니라 똑똑한 동생(진석, 원빈 분)이 장래 성공해서 가족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념에서 자신의 희생을 자처하는 이념과는 거리를 둔 인물임에 반해 『장진호』 2부작에서는 형 우첸리가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끈끈한 혈육의 정보다는 과거 혁명 및 전쟁 소재 영화들에 등장해온 혁명정신의 세대간 계승의 문제를 드러내는 정치적 클리셰를 연상케 하는 경험의 전수를 통한 성장에의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 기탁 등의 요소가 강조된다. 거듭 등장하는 대규모 전투장면 및 화려한 시각효과, 이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애국과 희생 등의 메시지로 집약되는 『장진호』 2부작에 있어 형제의 참전이라는 설정은 결론적으로 주제, 인물, 사건 사이의 유기적 결합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나타나지만, 『라이언일병 구하기』와 『태극기 휘날리며』 등 성공한 전쟁 영화의 핵심적 모티브들을 영화 속에 가져와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물로 이해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영화 『장진호』 2부작에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은, 『장진호 수문교편』에 핵심 재제로 등장하는 ‘다리’를 둘러싼 공방에 관한 소재이다. 라이언일병이 자신을 찾아온 대원들의 동행 요청을 거부하고 다리 사수 임무에 나서고 이에 감동한 대원들이 라이언 일병과 함께 다리를 사수하는 이야기는 해당 영화 초반부의 노르망디해안 상륙 장면과 더불어 영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데, 다리를 둘러싼 공방이라는 요소를 장진호 전투에서 활용하기 위해 실제로는 전체 전투에서 비중이 거의 없었던 수문교 폭파 시도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각색하고 있다.

일제시대 건설된 장진댐의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옆을 지나는 도로는 장진호 북측으로 깊숙이 진출한 미 해병대의 후퇴 경로에 있어 반드시 지나

들은 동생이 형을 찾아 나서기까지의 상황변화를 풍부하게 담아 가족애와 전쟁 과정 속에서의 이념 과잉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반전의 관점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애국과 희생이라는 주제를 초지일관 강조한 『장진호』 2부작과는 형제의 동시 참전이라는 공통점 외에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2022년 중일전쟁 시기를 무대로 한 역사드라마 『憑欄一片風雲起』에서 태극기 휘날리며의 테마를 표절한 곡을 오프닝 테마로 사용한 사례는 할리우드 영화 외에도 한국 영화들에 대한 참고 및 가져다 쓰기가 중국에서 폭넓게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 하는 도로였는데, 실제로 미해병 1사단 사령관 올리버 스미스소장이 장진호 서쪽 방향으로 북진하면서 다리가 이미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향후 중국 측의 포위공세의 위협을 감지하기도 했다. 이 끊어진 다리는 미군 공병대에 의해 복구되었다가 재차 중국측의 공격을 받아 7미터 가량이 끊어졌지만 철재 보강재를 항공기로 실어오는 등 공병대의 노력으로 단시간에 복구되어 17,000명의 해병대가 이 다리를 거쳐 질서 있는 퇴각에 성공했기에 결국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수문교 폭파는 실패한 작전이며 오히려 미군 측의 작전 성과로 칭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껏 부각되지 않았고 전체 장진호 전투에서도 그 비중이 크지 않은 수문교 기습 파괴 전과를 149분에 이르는 대작영화의 중심 소재로 삼은 이유는 『라이언일병 구하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리를 둘러싼 공방전의 모티프를 장진호 전투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배제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장진호』 2부작 직전에 개봉한 『금강천』 역시 북중 측이 한국전쟁 후기의 대표적인 전과로 자부하는 1953년 6월의 금성전투를 소재로 삼으면서도 그간 특별히 주목받았던 적이 없는 교량 보위전투(긴급 수리 및 교량 폭격 임무를 띤 미군 폭격기에 맞서는 고사포 분대의 활약)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장진호 수문교편』에서 강조한 수문교 폭파 임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해당 전투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변적 소재를 영화의 중심 모티프로 삼았다. 이러한 소재 선택에서의 헐리우드 영화 참고는 이 영화의 제작이 항미원조전쟁 참가7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서 전체 일정을 4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끝내야 했던 속성 작품임²³⁾을 감안할 때 일견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이 영화의 또다른 주요 모티프인 미군 폭격기에 맞서는 고사포 부대의 치열한 저항 역시, 또다른 헐리우드 전쟁영화의 성공작이라할 수 있는 『진주만』(2001)과 『미드웨이』(2019)의 핵심적 스펙터클을 구성하는 고사포 전투를 영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 의도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분초를 다투는

23) 유경철, 위의 논문, 226쪽.

급박한 제작일정 속에서 최근 헐리우드 전쟁 영화의 성공적 모티프인 '다리 사수'와 '고사포 전투'가 재조합되어 전통소설 『삼국연의』에서 널리 알려진 '장판과(長坂坡)를 사수하는 장비(張飛)'의 이미지와 함께 사용되는 일종의 혼성모방이 영화 서사의 뼈대를 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주요 모티프를 최근의 헐리우드 전쟁영화의 성공작에서 빌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방증은, 전투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서술한 나레이션 기법이 전체 내용과 무관하게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작 『덩케르크』(2017)의 나레이션 기법을 영화 속에 굳이 가져다 사용하고자 한 의도의 산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헐리우드 영화의 모티프나 기법 가져다 쓰기는 장진호 2부에 해당하는 『장진호 수문교편』과 같은 시기에 개봉된 『저격수』에서도 영화의 중심적 요소를 차지한다. 장이머우가 그의 딸 장모(張末)와 공동으로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그간 중국영화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서브장르로서의 저격수 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 자크 아노 감독의 2001년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소련과 독일의 두 저격수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열악한 무기로 독일군의 공격에 노출된 다닐로프가 탁월한 저격 실력으로 독일군을 해치우고 이를 목격한 정치위원에 의해 패배감에 젖은 소련군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영웅시되자, 독일 측은 고위 장교이자 저격학교 교장 쾨니히를 저격수로 파견하여 소련군을 역저격한다는 저격수 간의 대결이라는 설정이 많은 부분에서 『저격수』 내부로 차용되었다. 최고의 능력을 갖춘 저격수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는 흥미 요소, 저격 대결에서 동료들 '미끼'로 삼는 전투 방식, 저격수의 성과를 전황의 상징으로 삼는 양측의 선전 책략 등 영화의 많은 세부적 설정이 『저격수』에서 변형된 형태로 활용된다.

또한 저격수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긴박한 심리전을 펼치는 대결상황이나 거짓정보로 상대방을 유인하여 저격하는 등의 디테일한 모티프는 최근의 성공적 저격수 소재 영화 『더 월(The Wall)』(2017)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헐리우드 저격영화들의 여러 요소들을 버

무려 낸 작품에 대해 중국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교한 서스펜스와 이중적 서사구조를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서사의 리듬을 형성하는데 성공했으며²⁴⁾ 대작영화로 기획된 『장진호』의 경우와 달리 중간수준의 투자로 ‘작지만 푹푹하게 성공한 영화’로서 중국에 ‘스나이퍼 장르’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헐리우드 영화의 개인적 영웅주의와 구분되는 중국적 집단영웅주의를 그려낸 것으로 평가²⁵⁾되는 등 헐리우드 영화의 혼성 모방적 모티프 차용에 대한 지적 대신 찬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장진호』의 중반에 등장하는 탱크 간의 대결장면²⁶⁾은 2차대전을 배경으로 M4셔먼과 티거 탱크 간의 대결을 묘사한 『퓨리(Fury)』(2014)의 모티프 및 시각효과의 활용을 위해 전체 맥락과 긴밀한 연관 없이 도입된 장면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랫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있었던 항미원조의 기억을 되살려 현재의 미중갈등 상황에서 반미 애국의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작품들이 때로는 공공연히 때로는 은밀하게 헐리우드 영화의 모티브들을 전체 서사의 완결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거 활용하여 흥행의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은 사회주의적 이념 통제의 이면에 해외 지적재산에 대한 거리낌 없는 베껴오기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영화 속 애국주의를 둘러싼 논란과 이데올로기 전파의 한계

“왕강입니다.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합니다. 요리사로서 앞으로 다시는 계란볶음밥을 만들지도 요리하는 영상을 찍지도 않겠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군

24) 楚衛華, 「類型的創新与作者的堅守 — 評電影《狙擊手》」, 『藝術教育』, 2022. 162쪽.

25) 한담, 「중국 항미원조 영화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재현 양상과 한계 - 영화 <장진호> 시리즈의 ‘설욕내셔널리즘과 <저격수>의 ‘가국감정’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제39집. 65쪽.

26) 『장진호』(1:28:30-1:32:00)

인은 무엇보다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338만명의 위챗 블로그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網紅) 요리사 왕강은 마오안잉의 기일 이틀 후 올린 계란볶음밥 영상으로 인해 순국선열을 비방했다는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위의 사과문을 자신의 위챗 블로그에 게재하고 볶음밥 영상을 삭제한다. 마오안잉의 한국전쟁에서의 전사 원인이 당시 북한지도부가 평터화이에게 선물한 계란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려다 불빛이 새어나가는 바람에 미군의 야간공습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담은 한 참전장교의 회고록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회자되면서 계란볶음밥은 일종의 정치풍자적 밈(meme)이 되었고, 이에 대해 마오저똥주의 인터넷 사이트(烏有之鄉)의 일부 유저 등이 역사적 사실을 냉소와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와 얼음조각 중대에 대한 폄하에 분노를 표하며, '포스트모던 소비주의와 신자유주의 만연으로 인해 현대 중국의 영웅열사들의 명예가 모독되고 중국혁명 정당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0년 10월 24일에 인터넷에 올린 양저우식 볶음밥(揚州炒飯) 만드는 법 영상이 중국 누리꾼들의 집단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 한 차례 내려진 바 있었는데, 왕강이 올린 계란볶음밥 영상은 이미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목시적으로 금기시된 소재를 하필이면 마오안잉의 기일 이틀 후에 올린 것에서 자신의 콘텐츠 조회수 증가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행동으로 의심받게 되었고 왕강의 소셜미디어에 집단적 비난과 공격이 가해지기에 이르렀다.

이 논란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계란볶음밥으로 인한 폭사설'이 회자되자 2023년 11월 25일 중국역사연구원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가장 악랄한 유언비어”로 규정하면서 “영웅열사에 대한 털끝만큼한 오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며 역사가 이러한 모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는 강경한 반박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²⁷⁾

27) 「網紅名廚遭批侮辱毛岸英，拍片道歉發誓“再也不做蛋炒飯”」, 『星島環球』, 2023년 11월 29일.

<https://m.stnn.cc/c/2023-11-29/3858023.shtml> (검색일: 2023년 12월 5일)

사실 이 논란은 마오안잉의 사인 그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문제보
라기 보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이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
한 사실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역사적 재검토와 평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장진호』에서 전체 스토리 전개에서 마오안잉의 죽음은 전체 줄거리에서
결가지에 해당하지만 각별히 영웅적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당시 최고지도자
아들의 희생을 부각시키는 것은 전쟁에서 희생된 다른 평범한 군인들의 죽음을
어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당시의 희생이 과연 불가피
한 것이었는지의 문제를 둘러싼 정황 즉, 당시의 작전에서 보급과 전술의 여
러 가지 문제점을 현재의 입장에서 따져 묻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오
늘날의 시점에서 전쟁의 참상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묻는 작업 대신 애국과 희생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애국주의 돌출형 서사진
략은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조국을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얼음조
각 중대’ 장면에서도 반복된다.

반세기 전 국민들 가운데 당시 전쟁의 정당성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리라. 당시 바보 같은 일선 부대가 워선의 영명하신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의 전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필요
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의 북한과 한국을 보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해진다.
지원군 및 미군 양측이 남긴 구술자료를 뒤져 종합해 볼 때, 1950년
11월 27일에서 12월 7일 사이의 장진호 전투 기간, 장진호 지역 근처 산
골짜기의 최저기온은 영하 35-40도, 체감온도는 영하 55도로 추정되며,
2000미터 가량의 산등성이의 경우 최저온도 영하 40도, 체감온도 영하
60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중국 경제 주간지 차이징(財經)의 부편집장을 지낸 언론인 뤼창핑(羅昌平)
은 22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80후 세대 여론의 핵심인물’이자 ‘미디어계의
신세대 리더’로 불렸던 인물로 2021년 10월 6일 자신의 웨이보에 위와 같은

28) 「【立此存照】媒体人羅昌平因發布“羞辱烈士”言論遭官媒譴責、微博禁言」, 『中國數字時
代』. 2021년 10월 7일. <https://chinadigitaltimes.net/chinese/671767.html> (2023년 12
월 28일 검색)

내용을 포스팅하여, 『장진호』 속 얼음조각 중대의 희생이 부적절한 작전지휘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는 ‘좌파’ 성향 네티즌의 반발을 산다. 언급 내용 가운데 얼음조각(冰雕)과 비슷한 발음의 沙雕²⁹⁾라는 표현을 쓴 것이 빌미가 되어 이 포스팅은 인터넷상의 논란을 넘어 현실공간에서의 사법조치로 까지 이어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진다.

이 글을 올린지 이틀 후 하이난다오(海南島)성 산야(三亞)시 인민검찰원은 뤼창핑의 블로그 내용을 '영웅열사명예, 영예 침해 및 관련 민사공익소송 사건'으로 송치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10월 21일 뤼창핑을 체포하기에 이른다. 2022년 1월 19일 정식 기소된 후, 3월 30일 열린 1심에서 검찰측은 “항미원조 전쟁의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중국인민지원군의 얼음조각 부대 영웅열사를 모욕하여 그들의 명예와 영예를 침해하여 공중을 분노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극도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侮辱在抗美援朝長津湖戰役中犧牲的中國人民志願軍“冰雕連”英烈, 侵害英雄烈士的名譽、榮譽, 引發公衆強烈憤慨, 造成惡劣社會影響)”고 진술하면서 공식적 사과와 관련 배상을 주장하였고, 5월 5일 1심 선고에서 뤼창핑은 유기징역 7개월에 처해져 같은해 8월 6일 형기를 채우고 석방된다. 10월 6일 발표된 공개사과문을 통해 뤼창핑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중략)...타인들도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인터넷이 법의 울타리 바깥이 아님을 깨달아 결코 영웅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뤼창핑의 공개사과와 별개로, 장진호 전투에서의 과도한 희생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당시 충분한 방한 장구 등 보급이 없는 상황에서 체감 온도 기준 영하 60도(뤼창핑의 주장)에 달하는 극한적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달된 야간 매복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는가, 또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수사로 얼음조각 중대의 희생과 관련된 모

29) 모래조각(사다오 沙雕)은 중국 인터넷 유행어의 하나로, 욕설에 해당하는 “사다오(傻屌, 명칭한 찌질이 정도의 의미)”와 발음이 같아 금지어의 제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인터넷 상에서 재미와 웃음을 주는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 맥락과 피호칭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뤼창핑의 웨이보 포스팅의 본의라면, 그 가운데서 '바보(沙雕)'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영웅열사 모독죄'를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한 처사이며, 구금 상태의 재판과 형기만료 출소 후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게 한 조치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한 소지가 크다.

실제로 이들에게 방한장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작전에 투입과 관련하여 국내의 한 연구자는, 장진호 전투에 참가한 동북변방군의 구성이 국공내전 후기에 투항해온 국민당군을 개편한 제9병단과 제50군단이 포함되는 등, 인적 구성면에서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이기 보다는 신생국의 안정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반동세력' 출신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음을 지적하는 한편, 무리한 작전투입이 국민당 군대 출신병력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한다. 장진호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출신성분' 문제는 한국전쟁의 장기화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반공포로 송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이들은 공식적으로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동북지역(조선족, 만주족, 친일세력 등)과 양자강 이남 지역(국민당 세력, 친자본주의 세력 등)의 정치적 제거대상을 국가안보의 방패막이로 내세워 전쟁에 이용한 결과가 반공포로의 송환 거부 등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얼음조각 부대의 희생을 초래한 무리한 작전이 보급의 한계와 일기예측 실패, 작전지도부의 판단 착오 등의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발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 비적 출신(국민당계)과 이민족(조선족, 만주족 등)을 추방(제거)하는 데 6.25 전쟁을 이용한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도 연관된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얼음조

30) 양희철, 「중공군 포로의 송환거부를 통해 본 참전의도 연구」, 『군사연구』 140집, 251쪽.

각 중대의 신화에 대한 부정 역시 마오안잉의 사인을 둘러싼 논쟁이 결과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신화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미 논란이 되어왔던 마오안잉의 사인에 대한 논란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 영화 속에 줄거리와 동떨어져 삽입된³¹⁾ 마오안잉의 장렬한 죽음에 대한 묘사는, 유명 시사평론가 후시진의 언급처럼 시간과 함께 조용히 잊혀져 가야할 문제를 대중의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고 마오쩌둥과 마오안잉을 옹호하는 '샤오판홍(小粉紅)'들에 의해 계란볶음밥 동영상에 대한 사상 검열의 평지풍파를 재등장시킨 셈이다.

또한 역사 문제에 대한 검토가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의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대신 법적 재제와 구금상태에서의 재판과정 중에 공개사과를 강제하는 등의 형식으로 귀결된 점은 3기 시진핑 정부의 통치 행태가 일부 과격한 친정부 성향 대중들의 지지 및 그 반대자에 대한 공격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제적 방법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동원과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일방향적 주입이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생각만큼 용이한 일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5. 맺으며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최근 중국영화 『장진호』 2부작 및 『금강천』, 『저격수』 등의 작품이 애국주의 주선율 영화와 상업영화의 특징이 결합되어 새롭게 등장한 신주류 영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은 중미 관계가 회복된 70년대 이래 최근까지 묵시적으로 정

31) 「다시는 계란볶음밥 안 만들겠다'...中 인기세프는 왜 사과했나」, 『연합뉴스』, 2023년 11월 29일.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2240429> (검색일: 2023년 12월 5일)

면에서 다루지 않아온 향미원조라는 이름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애국주의 주선울영화의 지향에 맞추어 변형시켜 미중 갈등 시대의 반미 의식을 고양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제, 인물설정, 서사형식, 촬영기법 등의 영화적 요소들을 최근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전쟁영화로부터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 차원의 반미적 요소는 물질-기술적 차원의 친미(친헐리우드)적 요소와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공존의 결과로서 탄생된 이 작품들은 이념지향적 성격을 전면에 내세운 주선울영화의 성격과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상업영화(블록버스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혼종적 양상을 잘 보여주며 이 영화들의 높은 흥행실적은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국가 통제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요청하는 이러한 흐름은 소위 '신주류영화'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 한편, 최근 미국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시 부활시켜 신주류영화의 문법에 맞추어 구현해낸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에 대한 과도한 자국 중심의 역사해석과 애국주의와 개인의 희생이라는 주제의식의 일방적 성격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존재했으며 최근에 나온 유사한 재제의 작품인 『志願軍: 雄兵出擊』의 기대에 못미치는 흥행성적에서도 알 수 있듯 관객 대중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 영화가 표방하는 중국중심적 역사해석과 애국주의에 대한 호소는 사회주의 시기의 홍색경전의 전통을 새롭게 되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헐리우드 전쟁영화들에 숨겨져 있는 미국 중심주의를 고스란히 중국적 재제로 치환시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선과 악의 단순한 대비, 갈등 상황에 있는 상대의 처지와 사태의 복잡한 맥락을 드러내면서 공존과 타협의 가능성을 추구하기 보다 힘의 논리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성향은 미국이 이러한 갈등에 있어 언제나 선의 입장을 대변하리라는 믿음,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에 바탕하고 있다.³²⁾ 냉전적 세계인식과 미국 예외주의에 기반한

선민의식이 투영된 할리우드 전쟁영화를 보면서 불편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이 고스란히 주인공과 무대를 바꾸어 단순히 중국으로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재등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최근 항미원조 소재영화들은 지극히 미국적이기도 하다는 역설적 해석이 가능하다.

영화를 통해 표방하고자 하는 반미라는 가치가 단순히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이 대체하려는 팽창욕의 발현에 그치는 한 이들 영화의 메시지는 중국의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인 울림을 주기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이들 영화가 해외에서 울린 지극히 저조한 흥행성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내부결속용 애국주의를 통해 개인의 국가에 대한 무제한의 헌신을 요청하는 냉전시대에나 통할 법한 이념적 퇴행을 넘어서서 자국 문화컨텐츠 속에 인류보편의 가치, 공존과 평화, 인권 등의 문제들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 때, 중국이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는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성장 또한 가능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상층부에서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낡은 이념지향을 중국의 모든 것에 무차별적으로 투영시켜 상황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국가와 영화자본이라는 신주류 영화의 양대 주체로 시야를 국한하지 않으면 중국 내에도 엄연히 이들 영화의 바깥을 둘러싼 컨텍스트로서의 역사인식에 대한 관객 대중의 다양한 반응과 입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계란볶음밥 논란 및 얼음조각대대의 희생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통제를 희망하는 국가의 목소리 외에 이러한 통제 구조 내로 수렴되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대중의 목소리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가적 차원에서 날로 강화되는 통제기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영구적으로 완벽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것일 수 밖에 없으며 앞서 소개한 『지원군: 웅병출격』의 실망스런 흥행성적이 암시하듯 충분한 개연성과 깊이 있는 메시지, 강요되지 않은 감동의 요소가 부재한 작품들은 정치

32) 진성한, 「미국 예외주의의 변주: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위 위 솔저스>」, 『미국학』, 2021년 제44호 1권. 155~159쪽.

적 선전 효과는 물론 흥행이라는 목표에도 닿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국 네티즌들의 영화평점 사이트인 또우뽄영화(豆瓣電影)에는 『금강천』 6.6, 『장진호 수문교편』 7.2, 『장진호』 7.4, 『저격수』 7.7, 『태극기 휘날리며』 8.3, 『둔 케르크』 8.4, 『고지전』 8.5, 『라이언 일병 구하기』 9.1의 평점이 각각 매겨져 있다. 평범한 중국 영화팬들의 감각으로도 좋은 전쟁영화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며 자국(중국)산 전쟁영화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는 이 평점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냉정한 안목을 유지한 보통의 중국 관객들의 안목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향후 중국영화 역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參考文獻

- 강내영·장수현, 「중국식 블록버스터 상업영화의 변천과 이데올로기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18호, 2013.
- 김정구, 「동시대 중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속 '미국'이라는 문제」, 『중국현대문학』 제105호, 2023.
- 안영은, 「〈전랑(戰狼)2〉 연구: 주선율영화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주류영화로」, 『중국연구』 제82호, 2020.
- 유경철,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 국가의 요청에부응하는 중국 영화의 새 지향」, 『中國學論叢』 제75집, 2022.
- 진성환, 「미국 예외주의의 변주: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위 위 솔저스>」, 『미국학』, 제44호, 2021.
- 한담, 「탈혁명시대 중국 기억 서사의 난처함 - 영화 「나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87호, 2018.
- 한담, 「1958년 중국 '항미원조' 전쟁 기억의 정치성과 문화적 재현의 다층성」, 『중국문화연구』 제43집, 2019.
- 한담, 「중국 항미원조 영화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의 재현 양상과 한계 - 영화 <장진호> 시리즈의 '설욕 내셔널리즘' <저격수>의 '가국감정'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제39집, 2022.
- 백지운,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2023.
- 「협중이 놀이가 돼 버린 시대, 출구는 없을까」, 『서울신문』, 2022년 8월 28일.
- 「"국뽕" 영화 피로감" 中 국경절 '한국전쟁' 영화 흥행 참담」, 『아주경제』, 2023년 10월 5일.
- 「网红名厨遭批侮辱毛岸英, 拍片道歉发誓“再也不做蛋炒饭”」, 『星島環球』, 2023년 11월 29일.

Abstract

Screening the Korean War in China

— *The Battle at Lake Changjin I & II* (2021-2022), *The Sacrifice* (2020) and *Snipers* (2022)

Lee, Jeong Hoon

This study examines three recent Chinese films that focus on the Korean War as the main subject—*The Battle at Lake Changjin* duology, *The Sacrifice*, and *Snipers*—with respect to how they merge genre traits associated with the commercial film on the one hand and the zhuxuanlu (主旋律), a genre of Chinese filmmaking often described as nationalist propaganda, on the other. The thematic focus is itself a break from the tradition since historical memory surrounding Chin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remained an implicit subject of elision or evasion in China until recently. A notable feature of the three above films, moreover, is that while they rework these memories in conformity to the nationalist orientation of the zhuxuanlu, adapting the genre conventions to fit the current era of renewed Sino-American conflict, they also borrow liberally from Hollywood with respect to cinematic techniques. From characterization, plot development, to cinematography, these films mirror Hollywood's own recent slate of successful combat films. Situating this phenomenon within the current geopolitical climate, the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War theme enables a posture of opposition to the US even while allowing the films to faithfully follow the production trend of the "New Mainstream Cinema." Bringing together the disparate elements of the zhuxuanlu, namely it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blockbuster, which requires a concentrated investment of massive capital, in a fused form that appealed greatly to the contemporary Chinese movie-going public, the three films achieved great commercial success, appearing to present a new formula for success for contemporary Chinese cinema. At the same time, however, excessively Sinocentric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combined with biases inherent in their patriotic worldview that individual sacrifice is to be

taken for granted as the limitless duty one must perform for the nation, led to a proliferation of critical commentary and debate about the three films. The mediocre box office performance of *The Great War* (2023), which sought to recreate the formula for success, further casts doubt on whether the trend woul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recognizable genre.

Key words: Resist US and aid Korea, Korean War, Lake Changjin, Funchilin Pass Bridge, The Sacrifice, Snipers

투 고 일: 2024. 1. 10. / 심 사 일: 2024. 1. 15. ~ 2024. 2. 15. / 게재확정일: 2024. 2. 20.

